

**KOSDAQ**  
 기술하드웨어와장비

기업분석 2022.11.30

# 아이디스홀딩스(054800)

## 비대면·무인시대 4륜구동 르네상스

### 체크 포인트

- 아이디스홀딩스는 IT 멀티미디어 그룹의 지주회사. 아이디스홀딩스의 모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아이디스홀딩스의 자회사 중 하나인 아이디스. 아이디스는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되던 CCTV 영상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2011년에 아이디스홀딩스와 아이디스의 인적분할 및 아이디스의 재상장 완료. 아이디스는 2022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기업으로 신규 선정
- 아이디스홀딩스의 연결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주력 자회사는 4곳(아이디스, 코텍, 빅솔론, 아이디피). 주력 제품은 영상 보안 제품(아이디스), 카지노용 모니터(코텍), 산업용 소형 특수 프린터(빅솔론), ID 카드용 프린터(아이디피). 비대면·무인시대 산업용 IT 제품 수요가 주력 자회사 실적 견인
- 글로벌 IT 수요가 문화된 와중에서도 산업용 IT 제품 수요는 견조, 계열사간 연결 조정 제한적이면서도 시너지 가시적. 2022년 연결 매출은 8,619억원, 연결 영업이익은 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8%, 387%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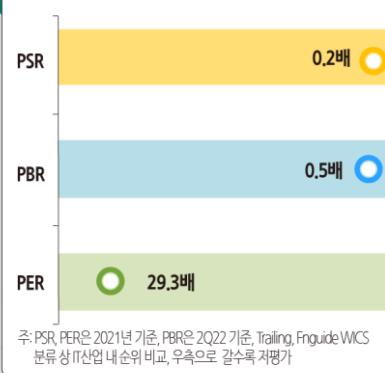
### 주가 및 주요 이벤트



### 재무 지표



### 밸류에이션 지표



# 아이디스홀딩스(054800)

Analyst 김경민 clairekmkim@kirs.or.kr  
RA 이나연 Iny1008@kirs.or.kr

KOSDAQ  
기술하드웨어와장비

## IT 멀티미디어 그룹의 지주회사

아이디스홀딩스는 주력 자회사 4곳을 중심으로 성장 중인 IT 멀티미디어 그룹의 지주회사. 아이디스홀딩스의 모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아이디스홀딩스의 자회사 중 하나인 아이디스. 아이디스는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되던 CCTV 영상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2011년에 아이디스홀딩스와 아이디스의 인적분할 및 아이디스의 재상장 완료. 미중 무역분쟁 시기에 중국 CCTV 기업 하이크비전이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경쟁사 아이디스에 우호적 환경 조성

## 주력 자회사간 산업용 IT 제품에서 시너지 기대

아이디스홀딩스의 연결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주력 자회사는 4곳(아이디스, 코텍, 빅솔론, 아이피). 주력 제품은 영상 보안 제품(아이디스), 카지노용 모니터(코텍), 산업용 소형 특수 프린터(빅솔론), ID 카드용 프린터(아이피). 비대면·무인시대 산업용 IT 제품 수요가 주력 자회사 실적 견인. 아이디스는 워키토키 기술 보유한 아이디스파워텔을 2021년 5월에 인수해 시너지 기대. 빅솔론과 아이피는 프린터 종합 솔루션 포트폴리오로 시너지 기대

## 2022년 연결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화

글로벌 IT 수요가 둔화된 와중에서도 산업용 IT 제품 수요는 견조. 계열사간 연결 조정 제한적이면서도 시너지 기대. 2022년 연결 매출은 8,619억원, 연결 영업이익은 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8%, 387% 증가할 것으로 전망. 4년간 5,000억원 내외로 정체되어 있던 연결 매출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장 시작

###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18	2019	2020	2021	2022F
매출액(억원)	5,563	5,078	4,322	5,444	8,619
YoY(%)	26.9	-8.7	-14.9	26.0	58.3
영업이익(억원)	548	467	154	193	941
OP 마진(%)	9.8	9.2	3.6	3.6	10.9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25	-112	34	44	1,380
EPS(원)	2,178	-1,078	328	425	13,332
YoY(%)	92.9	격전	흑전	29.4	3,037.7
PER(배)	6.2	N/A	39.1	30.7	0.9
PSR(배)	0.3	0.2	0.3	0.2	0.1
EV/EBIDA(배)	4.9	5.0	9.0	10.4	3.1
PBR(배)	0.6	0.6	0.6	0.6	0.3
ROE(%)	10.7	-5.2	1.6	2.0	46.8
배당수익률(%)	1.5	1.7	1.6	1.5	1.6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Company Data

현재주가(11/18)	12,200원
52주 최고가	13,550원
52주 최저가	10,700원
KOSDAQ(11/18)	731.92p
자본금	52억원
시가총액	1,262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0백만주
일평균 거래량(60일)	1만주
일평균 거래액(60일)	1억원
외국인지분율	7.88%
주요주주	김영달 외 6인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COMPANY LLC 외 3인
	45.01% 9.36%

### Price & Relative Performance



###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9.9	-3.9	-6.9
상대주가	4.7	14.4	31.4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 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 기업 개요

### 2011년, 다른 지주회사들보다 빠르게 IT 분야의 지주회사로 암착

**아이디스의 모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아이디스홀딩스의  
자회사 중 하나인 아이디스**

아이디스홀딩스는 IT 멀티미디어 그룹의 지주회사이다. 아이디스홀딩스의 모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아이디스홀딩스의 자회사 중 하나인 아이디스이다. 아이디스는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되던 CCTV 영상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서 IPO를 마쳤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1년에 아이디스홀딩스와 아이디스의 인적분할 및 아이디스의 재상장이 이루어졌다.

**2011년에 지주회사로  
인적 분할**

2011년 4월 11일 이사회 결의 및 2011년 5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아이디스홀딩스가 존속법인으로 남고, 아이디스가 신설 법인으로 자리 잡았다. 아이디스는 창업 초기부터 주력 사업이었던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 DVR(Digital Video Recorder)사업을 유지하게 되었고, 코스닥 시장에 2011년 9월 26일 재상장됐다. 한편 존속법인은 아이디스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1년 8월 2일에 상장됐다.

**지주회사가 많이 생겨난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인 2017년**

지주회사 관련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99년인데 아이디스홀딩스와 같은 지주회사가 많이 생겨난 것은 실제로 2017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로 전년(162개) 대비 31개 증가했다. IT 분야에서 원익홀딩스, 고영홀딩스 등 지주회사 전환 과정과 자기주식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고, 창업 초기부터 각 지주회사 그룹 내에서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하던 사업회사는 각 지주회사의 주력 자회사로 자리잡았다. 아이디스홀딩스의 경우에는 자회사 아이디스가 주력 자회사라고 할 수 있다.

**연결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주력 자회사는 4곳**

아이디스홀딩스는 2011년에 인적 분할을 마친 이후 2012년에 지주회사로 승인받았다.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력 자회사를 늘려왔다. 2022년 기준으로 아이디스홀딩스의 연결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주력 자회사는 4곳(아이디스, 코텍, 빅솔론, 아이디피)이다. 이들 기업이 아이디스홀딩스의 연결 매출에 크게 기여한다.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연결 매출은 6,538억원이며, 주력 자회사 4곳의 매출은 아이디스 1,973억원, 코텍 3,189억원, 빅솔론 1,080억원, 아이디피 314억원이다. 주력 자회사 사업 간에 겹치는 영역이 크지 않아 연결 조정 규모는 제한적이다.

**아이디스: 영상기기의  
개발 · 제조 · 판매사업 부문을  
담당**

**아이디스:** 1997년 9월 24일에 영상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2011년에 지주회사로부터 분리해 인적 분할됐다. 아이디스의 전방 산업에 해당되는 영상 보안 산업은 카메라 시장, 레코더 시장, VMS(영상관리시스템, Video Management System, 영상 녹화 소프트웨어 /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 / 비디오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로 구성) 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아이디스는 1997년 설립 이후 DVR(하드디스크를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및 품질에 대해 인정받아왔다. 최근에는 디지털 비디오 제품 중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IP(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영상 보안 제품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네트워크 기반의 NVR(Network Video Recorder) 및 고해상도 IP 카메라와 VMS(영상관리시스템, Video Management System)를 포함한 영상 보안 토탈 솔루션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다. 2022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1,973억원이다. 매출 비중은 Recorder 등 영상 저장 장치 25.22%, Camera 등 49.73%, 기타(소프트웨어, 액세서리) 25.05%이다. 아이디스홀딩스의 지분율은 44.18%이다.

#### 코텍: 산업용 모니터 공급

**코텍:** 1987년 3월 6일 설립되어, 산업용 모니터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09년에 본사 소재지를 이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본점과 제조시설을 두고 있다. 1999년 9월 8일에 기업명을 세주 전자에서 코텍으로 변경하였으며, 2001년 7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주력 제품은 카지노 슬롯머신, 전자 칠판, 항공관제,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이다.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카지노 슬롯머신 모니터 분야에서는 20년 연속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코텍은 세계 3위 업체인 Light and Wonder(구 Scientific Games)社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개시했으며, IGT, Aristocrat, Konami社 등 기존 거래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PID(Public Information Display) 분야에서는 전자칠판과 Digital Signage 등을 공급하고 있다. 전자칠판 사업부는 세계 Top 3 기업 Smart Technologies社에 2011년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하여 다수의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Digital Signage, Video Wall, Kiosk Display는 미국 Christie Digital社 등에 납품 중이다. 코텍의 2022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3,189억 원이고, 매출 비중은 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 등 제품 매출 97.4%, 애프터 서비스 및 상품 매출이 2.6%이다. 아이디스홀딩스의 지분율은 32.95%이다.

#### 빅솔론: POS 프린터 및 관련 주변기기 공급

**빅솔론:** POS (Point of Sale, 종전의 금전 등록기 기능에 컴퓨터 단말기 기능을 추가하여 매장의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컴퓨터로 처리하는 시스템)용 프린터 및 관련 주변기를 생산 및 공급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 14일 삼성전기에서 분사되어 설립되었다. 또한 2007년 8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주요 제품은 POS 용 프린터, 프린팅 메카니즘(출력 기능 돋는 핵심 부품), 라벨 프린터 등이다. POS 프린터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레스토랑, 호텔 등 영수증을 발행하는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POS 시스템이나 금전등록기 또는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소형 특수 프린터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주방에서 음식주문 확인, 컵 라벨링 및 배달 음식 확인용으로 쓰이고 있다. 프린팅 메카니즘이란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카드 조회 단말기), 의료장비, 계측기, 택시 미터기, 키오스크(Kiosk) 시스템 등에 내장되어 출력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품 개념이다. 라벨 프린터는 공장 및 택배회사, 의료기관 등에서 필요정보를 바코드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DATA를 인쇄 및 저장하도록 하는 프린팅 기계 장치를 의미한다. 국내 시장에서는 POS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 라벨 프린터 등의 제품 판매는 국내 충판을 두어 자사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브랜드로 판매하는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주문을 받고 있다. 수요가 많은 유럽과 미국에는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판매하고 있다. 그 외 동남 아시아 및 남미 등에는 Sales Representatives를 고용하여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2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1,080억원이고, 매출의 40% 이상을 POS 프린터가 차지하고 있다. 아이디스홀딩스의 지분율은 40.78%이다.

#### 아이디피: ID card printer 공급

**아이디피:** 아이디피는 2005년 12월 8일에 ID card printer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사는 서울시 구로 디지털단지에 자리잡고 있다. 주력 제품은 규격화된 카드 표면에 사진 또는 텍스트를 인쇄하는 장비로 신분증, 금융 카드, 회원 카드 등 특화된 카드 발급에 사용되는 특수 프린터다. 단순히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틱, IC(Integrated Circuit), RF(Radio Frequency)가 내장된 카드에 디지털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게

지원하여, 보안이 필요한 구역의 출입 카드,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 신분증, 은행, 증권사 등에서 발행하는 선불/체크 카드, 증권 카드 발급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22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314억원이고, 매출의 40% 이상을 POS 프린터가 차지하고 있다. 아이디스홀딩스의 지분율은 45.20%이다.

**아이디스홀딩스의  
M&A 행진 지속.  
무전통신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KT파워텔의 지분 44.85%를  
취득**

아이디스홀딩스는 이처럼 주력 자회사 4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 31일 신규사업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기존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전통신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KT파워텔의 지분 44.85%를 취득하여 아이디스의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으며,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아이디스파워텔로 변경하였다. KT파워텔은 워키토키로 잘 알려진 무전 통신 사업자이다. 워키토키 기술은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투어 행사 또는 해외 투자자 유치 행사에서 기이드용 기기 또는 동시통역 송수신용 기기 등에 사용된다. 아이디스파워텔의 전신은 1985년에 설립된 한국항만전화이다. 항만용으로 사용되던 워키토키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진 계기는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대규모 행사이다.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아이디스파워텔이 공급하는 LTE 기반 무전서비스 '라저(RADGER)'는 높은 통화 안정성과 편의성, 무전녹음 솔루션과 같은 기능으로 골프장에서 호평 받고 있다. 아이디스파워텔의 무전 솔루션은 국내 70여개 골프장에서 사용 중이며, 현장 사용자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를 도입하는 골프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무전 통신은 위험 상황 공지나 타구 사고 주의 등 고객 안전과 경기진행 처리를 위한 통신 범위, 고객 서비스 등을 위해 필요하다. 새벽 라운드 시에 안개가 낀 상황, 육안으로 홀 전체의 시야 확인이 어려운 상황 등에서 아이디스파워텔의 제품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지주회사로의 빠른 전환과  
M&A 추진이 아이디스홀딩스  
기업 가치에 긍정적**

아이디스홀딩스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남들보다 빨리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디스홀딩스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이다. IT 분야에서 지주회사 전환이 본격화된 시기는 훨씬 뒤인 2017년 전후이다. 지주회사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업 초기의 모태사업에 해당하는 IT(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은 대부분 사업회사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가 자리잡게 되었다. 원익홀딩스와 원익IPS(2016년), 고영홀딩스와 고영테크놀러지(2017년), 케이씨와 케이씨텍(2017년), APS홀딩스와 AP시스템(2017년), 피에스케이홀딩스와 피에스케이(2019년), 솔브레인홀딩스와 솔브레인(2020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중 무역 분쟁 계기로  
전방산업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 변화**

아이디스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김영달 회장이다. 3,423,840주(33.09%)를 보유하고 있다. 김영달 회장은 카이스트 졸업 이후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운 틈새 시장을 개척했다. 경비실에서 CCTV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에 하나씩 녹화하는 모습과 경비 담당이 비디오 테이프를 교체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후, 녹화용 비디오 테이프를 쓰지 않는 디지털 보안 장치를 개발했다. 아이디스 창업 후 1년이 되기 전에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DVR)'를 출시했다. 이후 아이디스는 보안 영상 분야 레코더 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2010년부터 하이크 비전 등 중국 영상 보안 기업들이 아이디스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저가에 공급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CCTV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자 아이디스는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이러한 영상 저장 장치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인구가 많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아이디스의 실적 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발발이다. 무역갈등 영향으로 중국 기업들의 위세가 위축됐다. 아울러, 코로나 발발 이후 비대면 수요와 보안 수요가 늘어나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의 판매를 촉진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아

아이디스홀딩스 내에서 아이디스가 사실상 소년가장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후 아이디스홀딩스의 M&A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아이디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 아이디스홀딩스의 연결 매출 중에서는 자회사 중에서 코텍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아이디스와 빅솔론이 기여하는 수준이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디스와 빅솔론의 누적 영업이익은 각각 230억원, 259억원이다.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기업명	설립일	사업	아이디스홀딩스 지분율
아이디스	2011.07.01(지주회사와의 분할 기일 기준)	DVR 개발 및 판매	44.18%
코텍	1987.03.06	산업용모니터 제조 및 판매	32.95%
빅솔론	2002.11.14	미니 프린터 개발 및 판매	40.78%
아이디피	2005.12.08	카드 프린터 개발 및 판매	45.2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주요 연결종속회사 4곳이 영위하는 목적사업

기업명	목적사업	기업명	목적사업
아이디스	1. 영상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2. 방송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 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5. 시스템 구축사업 6.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업 7. 기술연구 및 용역 수탁업 8.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특정한 목적에 부합한 주문형 반도체) 개발 및 판매업 9. 수출입업 10. 부동산 임대업 11. 영상 감시 장치, 정보통신 공사업 12. 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아이디피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2.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업 3. 컴퓨터 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4. 컴퓨터 관련 소모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 가전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6. 영상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7. 시스템 구축사업 8. 기술연구 및 용역 수탁업 9. 수출입업 10. 부동산 임대업 11. 프린터 개발, 제조 및 판매 12. 프린터 관련 주변기기 및 소모품 개발, 제조 및 판매 13. 통신 판매업 14. 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1. 프린터 메카니즘 제조 2. 프린터 부품 관련 사업 제조 3. 프린터 세트 제조 4. 도매업(프린터 관련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6.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7.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9. 무형 재산권 임대업 10. 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코텍	1. 전자부품 및 영상기기, 산업용 모니터 제조 및 판매 2. 멀티미디어 게임기기 개발 및 판매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4. 무역업 및 판매업 5.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및 전환사채 인수 6. 부동산 임대업 7. 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빅솔론	1.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 무형 재산권 임대업 5. 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2011년 인적 분할 당시부터 주력 자회사 역할을 담당하는 아이디스의 영상 보안 주력 제품과 기술

제품과 기술	내용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를 의미. 누구나 전파를 수신하여 방송을 볼 수 있는 일반적은 TV와 달리 케이블이 연결된 특정인만이 영상을 볼 수 있으므로 폐쇄회로 TV라고 불림. 교육, 의료, 범죄 예방 목적으로 널리 보급
DVR(Digital Video Recorder)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던 전통적인 아날로그 CCTV 제품을 대체. 카메라로 촬영한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 저장하는 장치
NVR(Network Video Recorder)	기본적으로 녹화 장비를 의미함. DVR 제품을 대체. IP 카메라를 통해 디지털 영상을 전송받아 압축 저장하는 기능.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장치(캡처 보드)가 필요 없어 가격이 DVR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
IP 카메라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nternet Protocol camera)는 일반적으로 감시를 위해 배치되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일종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들과 달리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
VMS (통합영상관제시스템: Video Management System)	영상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 방범, 재난, 어린이보호구역, 문화재 감시 등 보안 감시가 필요한 주요 지역에 설치돼 있는 CCTV 카메라의 모든 영상을 통합해 운영·관리하는 솔루션으로 관제센터에 따라 관제사가 한자리에서 수백, 수천 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탄생
고해상도(High Resolution)	감시 장치인 IP Camera에서의 영상 입력, 녹화 장치인 NVR에서의 저장 관리까지 모든 구성 장비에게서 요구되는 특성
고압축(High Compression)	H.264 압축을 50% 이상 효율화한 H.265와 H.264의 개선을 통해 압축율을 증가시킨 Smart Codec 기술이 최근 시장에서 대두
AI 솔루션(Artificial Intelligence)	범죄 예방이나 산업재해 예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솔루션이 영상 보안 산업에도 적용. 저장기기 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안관제 효율 제고. 얼굴인식 기반 기업용 보안 솔루션, ANPR(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이용한 주차관제 시스템 등이 대표적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산업 현황

### 1) 연결 자회사 아이디스의 전방 산업: 비대면, 건설사용, 주차장용 수요 증가

#### 미중 무역분쟁과

#### 코로나 발발 이후

#### 무인 경비 분야 수요 증가

아이디스의 매출 비중에서 ODM(제조사 개발 생산) 사업의 비중은 41%로 가장 높다. ODM 사업은 무인 경비 분야의 고객사 에스원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에스원의 매출은 2018년 187억원, 2019년 285억원을 기록했다가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57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중국 CCTV(예: 하이크비전)와 경쟁하던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 발생 이후 비대면 및 무인 경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이디스에서는 IP 제품을 대규모로 공급하며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했다. 이후 2021년 에스원의 매출은 550억원으로 주춤했다. 영상 저장 장치에 필요한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이슈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UMC, Applied Materials, ASML, Lam Research 등이 언급한 바와 같이 반도체 벤류 체인의 칩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있으므로 아이디스의 ODM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 DL그룹(舊 대림건설),

####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 통합시스템 수요 증가

아이디스의 매출 비중에서 ODM(제조사 개발 생산)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의 주력 전방 산업은 유통, 국방, 건설사 등이다. 그중에서 건설사의 통합시스템(주차 포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아파트 세대 내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이슈화되며 아파트 내의 통합보안솔루션 수요가 커지고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능형 CCTV와 주차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디스의 매출에 제한적으로 기여하던 대형 건설사(DL그룹(舊 대림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호반건설, SK 건설) 매출은 2023년부터 100억원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 및 공공 부문에서도

#### 영업 기회 확대

국방 및 공공 부문에서는 중국산 제품 배제 이슈로 아이디스의 사업 참여와 제품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야의 국방사업이 원래 중소기업적합업체종에 해당되어 아이디스와 같은 대기업에 불리했으나 이제 중소기업적합업체종에서 해제되어 아이디스처럼 민간 사업에서 표준 시스템으로 인정받은 곳이 국방 부문의 주요 공급사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조달 사업 분야에서도 중국산 제품 배제, 직접 생산(인하우스) 제품 우대, 상생협력제도 확대 등의 환경 변화도 아이디스의 영업 환경에 긍정적이다.

#### 스마트 주차 솔루션 수요 증가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첨단 보안 서비스가 주차장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T 주차는 카카오T 앱에서 주차장 탐색부터 결제까지 주차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주차 서비스다. 아이디스의 주차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량 인식 시스템으로 빛으로 인한 왜곡 현상 또는 불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99%의 정확도로 차량 번호를 인식한다. 또한, 아이디스가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 유도 시스템은 주차면과 통로를 하나의 카메라로 동시에 감시 및 분석 가능하다. 360도 감시가 가능한 다중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여 여분의 주차 공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관제실에 통보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국 1,000여곳 이상의 주차장에서 카카오T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카메라 시스템, 보안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

을 통합한 시스템이 주차 공간에서 요구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삼성동 코엑스, 여의도 IFC 등 대규모 주차장을 보유한 곳에서 통합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 2) 연결 사회사 코텍의 전방 산업: 엔데믹 영향으로 미주 지역 중심 수요 회복

### 상업용 및 카지노용

#### 시장 수요 회복

코텍의 전방 산업 중에 PID(Public Information Display) 분야는 리오프닝과 무인 매장의 확산에 힘입어 점진적인 공급 물량 증가가 기대된다. 코로나 별별 직후에는 전반적으로 제품 수요가 위축되었으나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제품 수요가 완연한 회복세이다. 한편, 완제품 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디스플레이(패널)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 TV-용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가격이 반등하긴 했지만 그 외의 패널 가격은 여전히 하락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코텍의 마진에 긍정적이다. 엔데믹 이후 전방 산업의 수요 개선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여행과 호텔,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롯데관광개발도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로나19 사태 속 제주에 복합 리조트를 개장해 아직까지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지만 제주 직항 노선 회복과 함께 방문객이 늘면서 본격적인 텐어리운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개점 휴업 상태에 있었지만 제주로 들어오는 직항 노선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최근 외국인 방문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에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세번째로 큰 전용 영업장이 있다.

### 코텍의 연구 개발 실적

제품	설명	제품	설명
카지노용 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규격 및 신뢰성 대응 설계</li> <li>Panel Type, Size에 따른 다양한 Line-up</li> <li>Cost Saving 설계, 고신뢰성 확보</li> </ul>	전자 칠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메라 방식 터치 패널 적용</li> <li>다양한 크기의 제품 개발(55", 70", 84")</li> <li>OPS 대체 Smartcard 적용</li> <li>고객 요구에 맞는 다양한 High-end 및 저가형 제품 개발</li> </ul>
Amusement 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해상도 설계 기술</li> <li>다양한 인터페이스 적용</li> <li>대형 인치 고해상도 고부가가치 제품개발</li> </ul>	교탁용 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칠판과 연동 가능</li> <li>LED 모니터 지원</li> </ul>
Digital Sign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Size 지원 (32" ~ 70")</li> <li>고해상도, 고효도 지원</li> <li>Progressive Game, SBG(Skill Based Game)에 적용</li> </ul>	일반 PID 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사이즈 모니터/터치패널 지원 (~ 98")</li> <li>다양한 크기의 제품 개발 (43", 70", 82", 98")</li> </ul>
무안경 3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anel 2장의 간극을 이용한 무안경 3D 모니터 개발</li> <li>PDLC(고분자 분산 액정, 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 필름을 이용한 2D/3D 선택 가능</li> <li>투과 모니터 방식 응용 설계</li> <li>PDLC/Sheet를 응용한 3D Pattern 모니터 설계</li> <li>3D 효과와 최적화를 위한 백라이트(BLU) 설계</li> </ul>	상황실용 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ltra Narrow Bezel/Extreme Narrow Bezel 적용</li> <li>고휘도 및 자체 열관리 기술 개발</li> <li>Color/휘도 보정 기술 개발</li> </ul>
주문형 LCD PAN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요구에 맞는 BLU, Touch 등의 설계 기술</li> <li>다양한 크기의 Application 지원</li> </ul>	초음파용 의료용 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ser Calibration Tool 개발</li> <li>User 제공용 Sensor 모듈개발</li> <li>DDC Application 적용</li> <li>高 分해능 Sensor 모듈 개발</li> </ul>
Resized 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 요구에 맞는 다양한 size 개발</li> <li>Scribe, Sealing 기술 적용</li> </ul>	임상용 의료용 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QA Web Protocol 개발</li> <li>Front Embedded type Brightness Control 구조 개발</li> </ul>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3) 연결 자회사 빅솔론의 전방 산업: 소형 특수 프린터가 필요한 영역 확대

B2C 제품의 브랜딩 강화,
이커머스(e-commerce)
확대 등에 힘입어
전통적인 업무용 프린터 외에
소형 특수 프린터가 필요한 영역 증가

빅솔론의 주요 제품은 POS 프린터 등 소형 특수 프린터다. 종이 없는 세상의 시대에 프린터가 사양 산업일 것 같지만 소형 특수 프린터 시장은 그렇지 않다. 집에서 쉽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일품 요리를 판매하거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무인 상점, 커피빈이나 할리스의 비대면 주문 전용 키오스크 등에서 소형 특수 프린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상점에 놓여 있는 POS (Point of Sale) 단말기용 프린터는 이미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으나, 고부가 소형 특수 프린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택배 상자에 상품명과 주소 등을 새기는 라벨 프린터 수요가 이에 해당한다. 빅솔론의 제품 중에 소호(SOHO) 시리즈 XF3-40는 소형 사무실과 홈 오피스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합한 송장용 라벨 프린터다. 작은 사이즈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겸비한 소호 시리즈 XF3-40은 간단한 설치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국내 외 모든 택배사 프로그램과 호환되며 최대 152 mm/sec의 빠른 인쇄속도를 지원하고 Class B 전자파 적합성 (EMC)을 획득하여 안정성을 보장한다. 그 밖에 '앗! 이런 곳에서도 프린터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만한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컵에 로고, 크기 등을 새겨 넣는 특수 프린터 수요도 증가한다. 전반적으로 B2C 제품의 브랜딩 강화, 이커머스(e-commerce) 확대 등에 힘입어 전통적인 업무용 프린터 외에 소형 특수 프린터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 빅솔론의 주요 제품

제품	설명
POS 프린터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레스토랑, 호텔 등 영수증을 발행하는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POS 시스템이나 금전등록기 또는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소형 특수 프린터
프린팅 메카니즘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카드 조회 단말기), 의료장비, 계측기, 택시 미터기, 키오스크(Kiosk) 시스템 등에 내장되어 출력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품
라벨 프린터	공장 및 택배회사, 의료기관 등에서 필요정보를 바코드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DATA를 인쇄 및 저장하도록 하는 프린팅 기계 장치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식품성분 확인, 컵 라벨링 및 저울에도 사용되고 있어 과거보다 그 사용처가 다양해지는 중
모바일 프린터	휴대가 가능한 소형 특수 프린터 의미. 물류, AS, 방문판매, 주유소, 주차장, 식당 등에서 사용되며 사용처는 늘어나는 추세. 또한 라벨 기능을 추가하여 가격 변동을 표기하는 용도. 주로 PDA 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과 볼루트스나 무선랜 등으로 연동되어 사용되며,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로 사용처가 늘어나는 중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4) 연결 자회사 아이디피의 전방 산업: 소모품 매출, 친환경 제품, 무인 발급 ↑

소모품 매출이 안정적인 가운데
친환경 방식 인쇄 수요 및
무인 발급 수요 증가

아이디피의 주력 제품인 카드 프린터는 규격화된 카드 표면에 사진 또는 텍스트를 인쇄하는 장비다. 신분증, 회원 카드 등 특화된 카드 발급에 사용되는 특수 프린터다. 단순히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틱, IC(Integrated Circuit), RF(Radio Frequency)가 내장된 카드에 디지털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게 지원하여, 보안이 필요한 구역의 출입 카드,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 신분증, 은행, 증권사 등에서 발행하는 현금 카드, 체크 카드, 증권 카드 발급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카드 프린터 사업의 특성은 프린터 판매에 수반되는 안정적인 소모품 시장(After Market)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카드 프린터 판매 이후에도 카드 프린터 사용에 따른 소모품 교체 및 구매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이다. 카드 프린터의 경우 구매 후 통상 5년에서 7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카드 프린터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품 소모품(통상 리본)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 프린터

누적 판매량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소모품 매출과 이익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업력이 오래 된 선도 업체의 경우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소모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품 마진도 기기(프린터 자체)보다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친환경 카드 인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카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리라이터블(Rewritable) 카드 전용 모델도 판매하고 있으며, 동 모델은 기존 카드에 인쇄된 내용을 최대 500회까지 자우고 재인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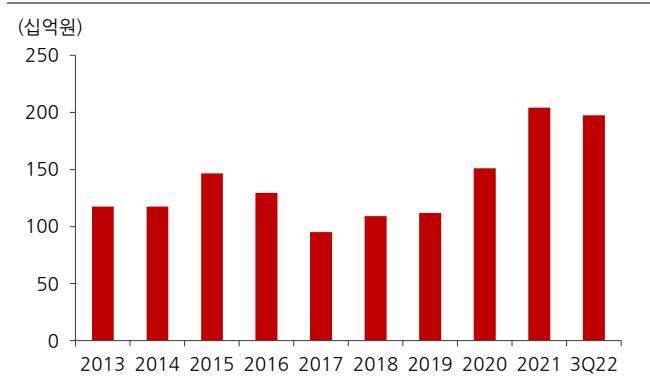
카드 프린터 산업은 중앙발급 방식과 현장발급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중앙발급 방식은 대형 카드 프린터 시장, 현장발급 방식은 테스크톱 카드 프린터 시장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중앙발급 방식이며, 운전면허증은 현장발급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 면적이 넓은 국가는 중앙발급시 물류비용과 배송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현장발급 방식이나 무인 카드발급(Kiosk) 방식을 선택하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인 무인 점포 증가 추세에 따라 카드 무인 발급기(Kiosk)에 설치가능한 카드 프린터와 카드공급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국내와 다르게 해외 국가에서는 카드배송 관련 물류비용과 송달 소요시간 등의 제약이 있어 무인 카드 발급 형태의 키오스크를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 아이디피의 카드 프린터 사용처

구분	최종 소비자	발급방식	용도
유통 시장	교육시설	현장	학생증, 도서관 카드
	기업체	현장	사원증
	소매점	현장	회원 카드, 적립 카드
	이벤트, 레저	중앙/현장	이벤트 출입 카드, 멤버십 카드, 포토 카드 등
	출입통제	중앙/현장	보안구역 출입통제, 근태관리, 방문자 카드
프로젝트 시장	관공서, 지자체	중앙/현장	정부발급 신분증, 의료보험증, 자격증, 지역화폐 등
금융 시장	은행, 증권, 보험사	현장	체크 카드, 입출금 카드, 선불 카드, 증권 카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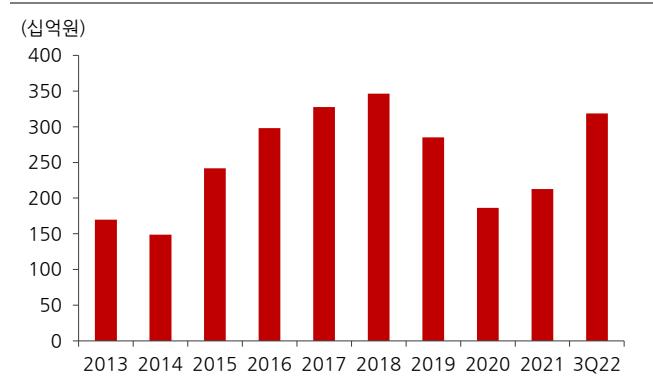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주력 자회사 아이디스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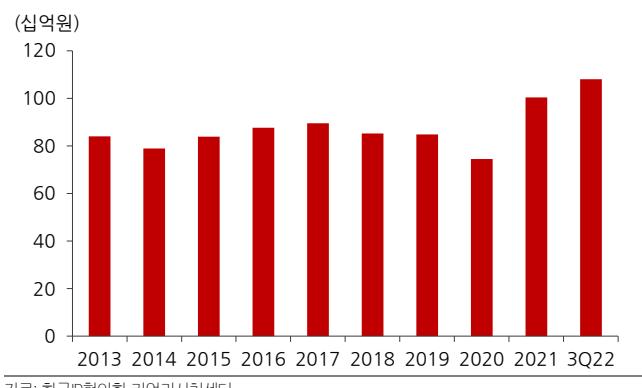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주력 자회사 코텍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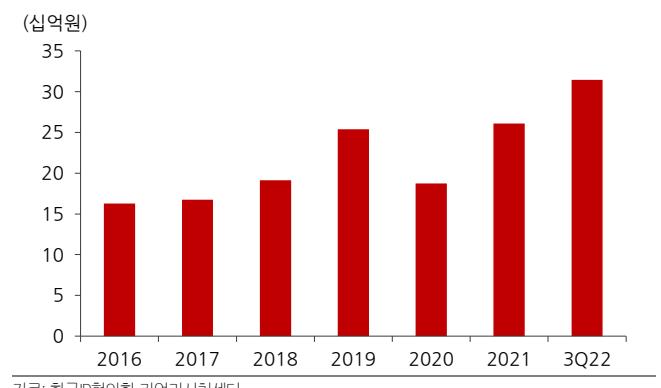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력 자회사 빅솔론 매출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력 자회사 아이디피 매출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 1) 글로벌 IT 수요가 둔화된 와중에서도 산업용 IT 제품 수요는 견조

산업용 IT 제품에 텁재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참고하면

산업용 IT 제품의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 확인 가능

전방 산업에서 IT 수요는 부진하다. PC 수요는 팬데믹 이후 감소세이다. 스마트폰 수요도 미찬가지다. 연간 15억 대 가까이 팔리던 스마트폰의 수요 추정치는 13억대 이하 수준으로 내려왔다. 서버 수요의 경우, 북미 클라우드 시장 수요는 견조하나 On-premise(전통적인 자체 전산실용 서버) 시장 수요는 혼조세이다. 이처럼 PC, 스마트폰, On-premise 서버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아이디스, 코텍, 빅솔론, 아이디피의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용 IT 제품의 수요는 견조하다.

산업용 IT 제품은 유통매장, 항만, 우주, 방산, 교육, 건설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므로 PC나 스마트폰처럼 연간 몇 대가 팔린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업용 IT 제품에 텁재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을 참고하면 산업용 IT 제품의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네덜란드의 NXP에서는 Core industrial customers 수요가 대단히 견조하다(very resilient)고 언급했으며 공급이 수요를 아직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견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반도체 분야에서 NXP와 경쟁하는 독일 기업 Infineon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Infineon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산업용 반도체에 대해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은 제한적이지만(Industrial is somewhat outside the spotlights), 산업용 반도체 매출은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으며(growing very strongly), 다른 제품 대비 마진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산업용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 중 반도체 유통기업 매커스의 3Q22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커스의 3Q22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67% 증가했다. 매커스가 유통을 담당하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는 PC나 스마트폰 같은 일반적인 B2C IT 제품이 아니라 항공용, 엑스레이기기용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 2) 계열사간 연결 조정 제한적이면서도 시너지 가시적

아이디스와 아이디스파워텔,

빅솔론과 아이디피의

시너지 기대

아이디스홀딩스의 계열사 4곳(아이디스, 코텍, 빅솔론, 아이디피) 및 아이디스의 자회사(아이디스파워텔) 중에서 시너지가 기대되는 곳은 아이디스와 아이디스파워텔, 그리고 빅솔론과 아이디피이다.

아이디스파워텔은 국내 무전통신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항만에서 주로 쓰이던 아이디스파워텔의 위키토키 솔루션은 대규모 국제 행사, 골프장 등까지 응용처를 확대했다. 아이디스파워텔의 무전 기술과 아이디스의 영상 보안기술을 종합 솔루션으로 공급함으로써 각 사의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 아이디스파워텔의 경우 별도의 전용 무전기를 구매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중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3만대 이상 대형 가입자의 경우 1천원 대의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보편적 무전서비스 PTalk-Biz를 출시했다. 무전서비스는 별도의 전용 무전기를 구매하고 가입 신청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해 많은 기업들이 업무용 통신으로 유용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입하기 힘든 진입장벽이 있었다. 아이디스파워텔은 최근 배달대행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로고와 PTalk-Biz를 이용한 라이더 안전 배달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바로고 라이더들은 교통 정보, 사고 정보 공유 등 배송에 필요한 정보를 무전을 통해 전달받아 보다 안전하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통신형 데이터 차량용 단말기, 위치관제 등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매출 중 IoT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디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아이디스의 유선망 기반의 CCTV 통합관제솔루션을 아이디스파워텔의 무선망 기반의 통합관제 시스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며, 최근 아이디스파워텔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IoT 제품에 대해서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용 프린터 분야에서 빅솔론과 아이디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회원증을 발급할 때는 아이디피의 ID 카드용 프린터가 필요하다. 개별 회원이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용 컴퓨터에서 검색해서 도서 위치를 인쇄하거나 열람실에서 착석할 자리의 예약 내역을 인쇄할 때는 빅솔론의 소형 특수 프린터가 필요하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때는 무인 예약 대출기, 무인 반납기, 스마트 도서관 등을 통해 처리 가능한데, 이때에도 도서 대출 확인 영수증, 도서 반납 확인 영수증 등을 인쇄할 때도 소형 특수 프린터가 사용된다.

이처럼 자회사 간의 시너지가 기대되면서도 자회사 사업 간에 겹치는(중복되는) 영역이 크지 않아 연결 조정 규모가 연간 기준 수백억원 내외로 제한적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아이디스홀딩스 연결 매출은 6,538억원이며, 주력 자회사 4곳의 매출은 아이디스 1,973억원, 코텍 3,189억원, 빅솔론 1,080억원, 아이디피 314억원이다. 이처럼 주력 자회사 4곳의 합산 매출과 아이디스홀딩스 연결 매출은 크게 다르지 않다.

## 실적 추이 및 전망

### 1)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실적 리뷰

#### 주력 자회사가

#### 고르게 실적 기여

아이디스홀딩스의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6,53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3,857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이디스파워텔(舊 케이티파워텔)이 2021년 5월에 아이디스의 자회사(아이디스홀딩스의 손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2022년 1~3분기에 온기로 아이디스 연결 매출에 기여했다. 아이디스파워텔의 2022년 3분기 누적 매출은 387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주력 자회사 4곳의 매출을 살펴보면, 아이디스 1,973억원(종속 자회사 아이디스파워텔 매출 합산), 코텍 3,189억원, 빅솔론(종속 자회사 에버린트 등 합산) 1,080억원, 아이디피(해외 법인 매출 합산) 314억원이다.

아이디스 제품 중에서는 안정적인 무인 경비 시장 ODM 매출과 무인 매장 관련 매출이 증가했다. 아울러, 전방 산업 중에 조달/국방/주차관제/건설사항 매출이 고르게 증가했다. 해외 수요처 중에서는 일본向 매출이 견조했다.

코텍은 전방 산업에서의 주요 복합 리조트의 카지노 투자 증가와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Curved display 등) 제품 판매 호조가 긍정적이었다. 아울러, 오프라인 교육과 대면회의 재개로 모니터 사업의 수요 회복이 가시적이다.

빅솔론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었다. 특수 목적용 POS(Point of Sale) 프린터, 물류용 라벨 프린터, 모바일 라벨 프린터 수요가 견조했다. 빅솔론에서는 고마진에 기여하는 라벨 프린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서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했다. 산업용 중형 라벨 프린터를 4종류에서 9종류로 확대했다.

아이디피는 엔데믹과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증가와 정부 주도 프로젝트 사업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무인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 관련 매출이 증가했고, 경쟁사의 납기 지연에 따라 상대적 수혜를 입었다.

### 2) 2022년 연간 실적 전망

#### 수요가 근본적으로 증가하는

####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해 긍정적

2022년 연결 매출은 8,619억원, 연결 영업이익은 941억원으로 전망된다. 아이디스홀딩스가 거의 순수한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 별도 매출 규모는 제한적이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아이디스홀딩스 별도 매출은 54 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이디스홀딩스의 주력 자회사 4곳과 아이디스의 자회사(아이디스파워텔)의 실적 기여가 아이디스홀딩스의 연결 실적 달성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난 4년 동안(2018~2021년) 아이디스홀딩스의 연결 매출은 연간 기준 5,000억원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주력 자회사의 실적 기여가 확대되며 연간 매출의 앞자리가 크게 바뀐다.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Non-China 보안·영상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 엔데믹 이후 카지노용 모니터 등 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는 품목과 모바일 프린터, 라벨 프린터 등 비대면 수요 증가에 영향을 받는 품목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점, 주력 자회사 간의 시너지가 연결 실적의 성장을 이끈다. 머지 않아 아이디스홀딩스가 연결 기준 매출로 1조원을 상회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달성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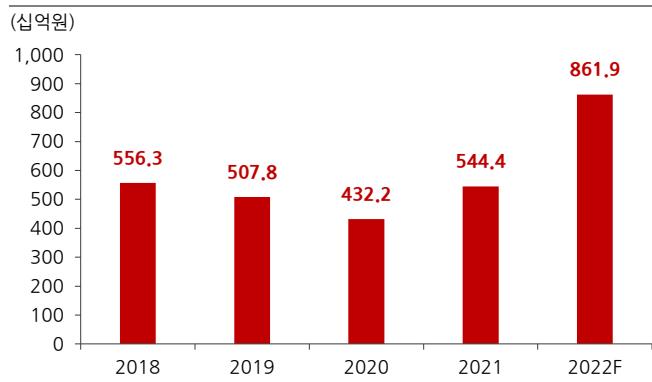
##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F
매출액	5,563	5,078	4,322	5,444	8,619
YoY	26.9	-8.7	-14.9	26.0	58.3
투자사업부문	79	79	71	78	82
제조사업부문(주력 자회사 4곳)	6,158	5,712	4,939	6,328	8,763
내부거래조정	-674	-713	-689	-962	-225
영업이익	548	467	154	193	941
YoY	69.8	-14.8	-66.9	25.3	386.8
OP 마진	9.8	9.2	3.6	3.6	10.9
지배주주순이익	225	-112	34	44	1,380
EPS	2,178	-1,078	328	425	13,332
YoY	92.9	격전	흑전	29.4	3,037.7
ROE	10.7	-5.2	1.6	2.0	46.8
자본총계	6,112	6,163	6,136	6,837	7,900
BPS	21,351	20,285	20,565	21,918	35,075
YoY	10.8	-5.0	1.4	40.4	60.0
부채비율	30.9	29.7	28.3	37.1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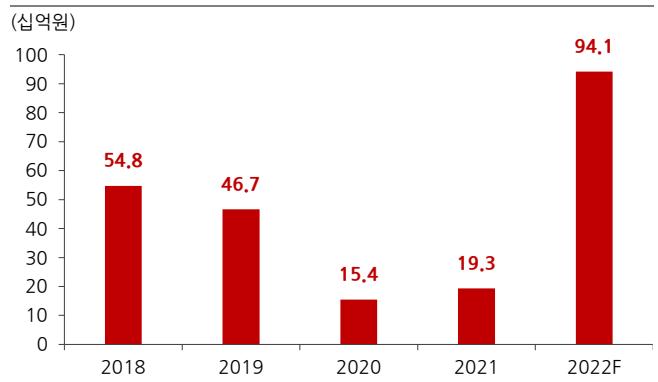
자료: 아이디스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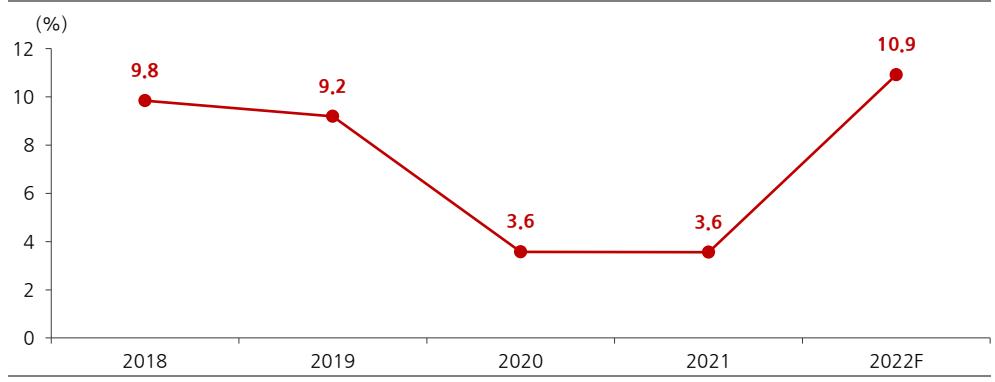
자료: 아이디스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아이디스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아이디스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Valuation

### PSR, PER, PBR 중에 어느 지표를 살펴봐도 지나치게 저평가

#### PSR 0.2배로 지나친 저평가

아이디스홀딩스의 2022년 추정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은 PSR, PER, PBR 중에 어느 지표를 살펴봐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가장 직관적인 지표에 해당하는 PSR(주당매출액) 밸류에이션은 0.2배이다. 주력 자회사 4곳의 실적을 감안한 아이디스홀딩스 연결 매출 추정치가 8,000억원이 넘는데 시가총액은 1,500억원 미만이다 보니 이처럼 아이디스홀딩스가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 주력 자회사에 대한

#### 기관 투자자와

#### 외국인 투자자들의

#### 관심이 커지면

#### 아이디스홀딩스도

#### 저평가 벗어날 것

그렇다면 아이디스홀딩스의 밸류에이션은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까? 아이디스홀딩스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려면 주력 자회사들도 같이 주목을 받아야 한다. 일단, 주력 자회사들의 실적이 견조한 것으로 보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력 자회사 4곳(아이디스, 코텍, 빅솔론, 아이디피)의 시가총액이 모두 3,000억원 미만이다 보니 대형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운영 종목으로 고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편입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종목이 아닌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거나 커버리지 증권사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종목을 상대적으로 선호한다. 주력 자회사들이 각각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지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작은 별이다 보니 이와 같은 상황이 주식의 수급에 영향을 끼쳐 모회사(아이디스홀딩스)의 저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그러나 2023년 연결 매출 기준으로 1조원 달성이 가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4분기 및 2023년 연간 실적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된다면 결국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커질 것이고, 아이디스홀딩스가 저평가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이디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단위: 원, 달러, 십억원, 배)

기업명	종가	시가총액	매출액		PSR		PER		PBR	
			2021년	2022년F	2021년	2022년F	2021년	2022년F	2021년	2022년F
코스피	2,438	1,863,685	2,924,624	2,797,871	n/a	0.6	n/a	11.3	n/a	1.0
코스닥	734	339,611	274,267	109,947	n/a	1.5	n/a	17.5	n/a	2.1
<b>아이디스홀딩스(IT 지주사)</b>	<b>12,450</b>	<b>129</b>	<b>544</b>	<b>862</b>	<b>0.3</b>	<b>0.2</b>	<b>30.7</b>	<b>0.9</b>	<b>0.6</b>	<b>0.3</b>
아이디스(주력 자회사)	23,750	255	204	n/a	1.2	n/a	10.9	n/a	1.3	n/a
코텍(주력 자회사)	9,600	150	213	n/a	0.7	n/a	-11.6	n/a	0.5	n/a
빅솔론(주력 자회사)	7,550	145	100	n/a	1.3	n/a	5.0	n/a	0.6	n/a
아이디피(주력 자회사)	4,640	62	26	n/a	2.0	n/a	12.2	n/a	1.3	n/a
원익홀딩스(IT 지주사)	3,510	271	844	n/a	0.5	n/a	3.5	n/a	0.4	n/a
APS홀딩스(IT 지주사)	14,650	299	39	n/a	7.7	n/a	14.0	n/a	1.5	n/a
피에스케이홀딩스(IT 지주사)	7,800	168	82	n/a	4.7	n/a	8.3	n/a	1.5	n/a

주: HPSP와 저스템은 2022년에 상장했으므로 2021년 주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지표가 존재하지 않음, 자료: Quantivwis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 리스크 요인

### 지분법 자회사 실적이

### 지주회사 실적의 가장 큰 변수

아이디스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자체 사업 활동보다 주력 자회사 4곳(아이디스, 코텍, 빅솔론, 아이디피)의 실적이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끼친다. 2022년 아이디스홀딩스 연결 매출은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의 매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전년대비 큰 폭의(YoY 58.3%)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주사인 아이디스홀딩스의 순이익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의 실적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아이디스

아이디스의 주요 사업은 CCTV와 같은 영상 저장 장치의 개발 제조 판매 사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경쟁업체는 중국 영상 보안 기업들로,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산 제품의 배제 이슈에 따라 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코로나 발발 이후 비대면 및 무인 경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이디스의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만일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고 중국 통신 장비 사용 제재가 줄어든다면, 과거 중국의 저가형 CCTV와 경쟁하면서 적자를 경험했던 것처럼 아이디스의 이익 가시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영상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 영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산 CCTV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보다도 국가 및 개인의 정보 안전이 더 부각될 것이며 미국과 유럽법안을 운영중인 아이디스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며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2) 코텍

코텍은 산업용 모니터의 제조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매출의 약 60%가 카지노 슬롯머신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카지노 슬롯머신 모니터 글로벌 1위 업체다. 카지노 업황 정상화에 따른 사상 최대 게이밍 모니터 매출액을 달성해 2022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불황기를 맞았던 카지노 산업의 특성상, 향후에도 바이러스의 재발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카지노 휴장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나 엔데믹은 다가왔고 가장 심각한 불황을 겪었던 카지노 산업의 이연된 교체 수요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 카지노 개발 등 신규 수요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 불황 및 침체기에도 상류층의 소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방산업의 특성상 코텍의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 (3) 빅솔론

빅솔론은 영수증과 라벨을 생성하는 산업용 프린터를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제품은 포스 프린터, 라벨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결제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2021년 글로벌 포스 프린터 시장이 전년대비 11.9% 성장했고 빅솔론의 점유율도 확대됐다. 그러나 디지털 결제 시장의 발전에 따라 전자영수증, QR코드 결제 등 종이영수증이 디지털화 될 수 있다는 점과 중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이용한 점유율 확대는 여전히 가장 큰 위험으로 남아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적인 변화는 수많은 점포를 무인화로 이끌어 키오스크용 프린터 수요를 증가시키고, 온라인 주문 처리의 증가는 고객의 주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형 특수 프린터를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이커머스 확대에 따른 물류센터 수요 증가는 산업용 라벨 프린터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등 전통적인 종이영수증의 시대는 저물 수 있으나 시대의 변화로 인한 종이의 출력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빅솔론이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 (4) 아이디피

아이디피는 ID Card printer 및 관련 소모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매출의 약 90%가 해외에서 발생한다. 아이디피가 영위하는 카드 프린터 산업의 가장 큰 의문도 비솔론과 유사한 모바일 전환에 따른 실물 카드 수요 둔화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고, 생체인식 기술의 접목과 앱카드 전환 등 카드 프린터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디피 매출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어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개발도상국에는 여전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상황으로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전환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며, 2018년 한국의 비현금 결제 도입률은 94.7%, 미국은 47.0%, 일본은 24.2%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이후 비접촉식 카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The World Bank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제공하는 ID4D(Identification for Development)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ID시스템 구축을 확대할 계획에 있어, 이러한 해외 정부 주도 프로젝트 사업에 힘입어 아이디피의 카드 프린터 수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소모품 비중도 증가해 이익구조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19	2020	2021	2022F
<b>매출액</b>	<b>5,078</b>	<b>4,322</b>	<b>5,444</b>	<b>8,619</b>
증가율(%)	-8.7	-14.9	26.0	58.3
<b>매출원가</b>	<b>3,619</b>	<b>3,211</b>	<b>4,035</b>	<b>6,220</b>
매출원가율(%)	71.3	74.3	74.1	72.2
<b>매출총이익</b>	<b>1,459</b>	<b>1,111</b>	<b>1,409</b>	<b>2,399</b>
매출이익률(%)	28.7	25.7	25.9	27.8
<b>판매관리비</b>	<b>992</b>	<b>956</b>	<b>1,216</b>	<b>1,458</b>
판관비율(%)	19.5	22.1	22.3	16.9
<b>EBITDA</b>	<b>680</b>	<b>399</b>	<b>484</b>	<b>1,183</b>
EBITDA 이익률(%)	13.4	9.2	8.9	13.7
증가율(%)	-10.4	-41.3	21.4	144.3
<b>영업이익</b>	<b>467</b>	<b>154</b>	<b>193</b>	<b>941</b>
영업이익률(%)	9.2	3.6	3.6	10.9
증가율(%)	-14.8	-66.9	25.3	386.8
<b>영업외손익</b>	<b>-178</b>	<b>-98</b>	<b>-206</b>	<b>423</b>
금융수익	229	156	234	555
금융비용	142	256	57	179
기타영업외손익	-266	2	-383	47
<b>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b>	<b>2</b>	<b>-0</b>	<b>0</b>	<b>0</b>
<b>세전계속사업이익</b>	<b>291</b>	<b>57</b>	<b>-12</b>	<b>1,364</b>
증가율(%)	-55.7	-85.1	적전	흑전
법인세비용	156	9	-47	283
계속사업이익	136	61	34	1,081
중단사업이익	-1	-14	0	0
<b>당기순이익</b>	<b>135</b>	<b>48</b>	<b>34</b>	<b>1,081</b>
당기순이익률(%)	2.7	1.1	0.6	12.5
증가율(%)	-74.9	-64.6	-27.7	3,037.7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12	34	44	1,380

## 재무상태표

(억원)	2019	2020	2021	2022F
<b>유동자산</b>	<b>5,142</b>	<b>4,761</b>	<b>5,911</b>	<b>7,844</b>
현금성자산	1,466	1,435	765	987
단기투자자산	1,491	1,377	1,415	2,192
매출채권	879	739	1,264	1,586
재고자산	1,194	1,094	2,139	2,560
기타유동자산	111	116	328	519
<b>비유동자산</b>	<b>2,854</b>	<b>3,109</b>	<b>3,464</b>	<b>3,338</b>
유형자산	1,293	1,475	1,577	1,502
무형자산	702	639	299	241
투자자산	650	775	851	857
기타비유동자산	209	220	737	738
<b>자산총계</b>	<b>7,996</b>	<b>7,870</b>	<b>9,375</b>	<b>11,182</b>
<b>유동부채</b>	<b>902</b>	<b>789</b>	<b>2,364</b>	<b>3,043</b>
단기차입금	280	278	477	477
매입채무	308	255	541	857
기타유동부채	314	256	1,346	1,709
<b>비유동부채</b>	<b>930</b>	<b>945</b>	<b>174</b>	<b>239</b>
사채	0	0	0	0
장기차입금	723	725	4	4
기타비유동부채	207	220	170	235
<b>부채총계</b>	<b>1,832</b>	<b>1,734</b>	<b>2,538</b>	<b>3,282</b>
<b>지배주주지분</b>	<b>2,099</b>	<b>2,128</b>	<b>2,268</b>	<b>3,630</b>
자본금	52	52	52	52
자본잉여금	560	632	649	649
자본조정 등	-142	-223	-225	-22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3	16	94	94
이익잉여금	1,633	1,651	1,697	3,059
<b>자본총계</b>	<b>6,163</b>	<b>6,136</b>	<b>6,837</b>	<b>7,900</b>

## 현금흐름표

(억원)	2019	2020	2021	2022F
<b>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b>1,017</b>	<b>511</b>	<b>-492</b>	<b>1,070</b>
당기순이익	135	48	34	1,081
유형자산 상각비	84	120	168	184
무형자산 상각비	129	124	123	58
외환손익	27	113	3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80	148	-1,119	-211
기타	262	-42	299	-42
<b>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b>-333</b>	<b>-386</b>	<b>-530</b>	<b>-855</b>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37	-193	-144	-6
유형자산의 감소	3	2	17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376	-293	-233	-110
기타	3	98	-170	-739
<b>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b>-238</b>	<b>-123</b>	<b>75</b>	<b>3</b>
차입금의 증가(감소)	-53	3	201	21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자본의 증가	1	129	0	0
배당금	-89	-88	-74	-19
기타	-97	-167	-52	1
<b>기타현금흐름</b>	<b>-2</b>	<b>-34</b>	<b>277</b>	<b>4</b>
<b>현금의증가(감소)</b>	<b>444</b>	<b>-32</b>	<b>-670</b>	<b>222</b>
기초현금	1,023	1,466	1,435	765
기말현금	1,466	1,435	765	987

## 주요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F
P/E(배)	N/A	39.1	30.7	0.9
P/B(배)	0.6	0.6	0.6	0.3
P/S(배)	0.2	0.3	0.2	0.1
EV/EBITDA(배)	5.0	9.0	10.4	3.1
배당수익률(%)	1.7	1.6	1.5	1.6
EPS(원)	-1,078	328	425	13,332
BPS(원)	20,285	20,565	21,918	35,075
SPS(원)	49,071	41,765	52,609	83,296
DPS(원)	200	200	200	200
<b>수익성(%)</b>				
ROE	-5.2	1.6	2.0	46.8
ROA	1.7	0.6	0.4	10.5
ROIC	5.4	3.0	-15.9	16.5
<b>안정성(%)</b>				
유동비율	569.8	603.7	250.0	257.8
부채비율	29.7	28.3	37.1	41.5
순차입금비율	-31.3	-28.6	-12.9	-23.5
이자보상배율	17.8	7.1	8.6	37.8
<b>활동성(%)</b>				
총자산회전율	0.6	0.5	0.6	0.8
매출채권회전율	5.0	5.3	5.4	6.0
재고자산회전율	4.2	3.8	3.4	3.7

###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경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정보 등 대외제공에 관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